

‘적’이 된 안치홍 “KIA전서 못하면 팬들이 좋아하겠죠?”



19일 롯데 유니폼을 입고 처음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내야수 안치홍이 1루 단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FA 협상 끝 KIA서 롯데로 유니폼 갈아입어 ‘야구 고향’ 찾아 한술밥 옛 동료들과 첫 대면 경기 팬들에 인사 못해 아쉬움...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것”

롯데 유니폼을 입고 낯선 챔피언스필드 1루에 등장한 안치홍은 “지금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다”며 어색하게 웃었다. 서울고를 졸업하고 지난 2009년 KIA 유니폼을 입은 안치홍은 지난 2019년까지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선수로 뛰었다. KBO리그의 신인 기록들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입단 첫째 타이거즈의 V10의 현장에 섰던 그는 이후 팀을 대표하는 2루수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세 차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름이 호명되면서 팀은 물론 KBO리그 2루수로도 인정받았다.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이기도 했다. 지난해 중반에는 김주찬에 이어 타이거즈 ‘캡틴’ 역할도 맡았지만 올 시즌에는 롯데 선수로 뛰고 있다. 지난 시즌 공·수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안치홍은 FA협상 과정에서 2루수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중요한 선수로 존중해준 롯데를 선택했다. ‘타이거즈 20년’을 약속했던 안치홍에게는 어

려웠던 선택이었지만, 안치홍은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리고 19일 안치홍은 새 동료들과 처음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지난 3월 KIA와 롯데의 시범경기 일정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시범경기가 취소되면서 이날 경기가 안치홍이 ‘야구 고향’에서 치르는 첫 경기가 됐다. 안치홍은 “챔피언스필드 (원정팀 덕아웃인) 1루를 자주 온 것은 아니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경찰 야구단에서 있을 때 여기 와서 퓨처스리그 시합했던 게 생각도 난다”며 “(KIA가) 워낙 정이 있는 팀이고 친한 선수들이 많고 또 무관중이니까 정백전하는 느낌도 들 것 같다(웃음). 시합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다”고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소감을 밝혔다. “즐거게”를 외치며 새로운 팀 적응은 일찍 끝났다. 안치홍은 “새로운 팀에 왔고 형들이랑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진짜지만 말은 잘한다(웃

음). 다만 워낙 예민한 성격이기에 때문에 이게 쉽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재미있게 즐겁게 하려 한다”며 “KIA에서도 어려울 때부터 형들하고 늘 함께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욕심 많고, 예민한 성격이라 그라운드에서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연습경기에서 고공 행진을 했던 만큼 진짜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안치홍은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압박감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는 생각뿐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기다렸던 챔피언스필드 원정. 하지만 이번 원정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면서 자신을 응원해주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하게 됐다. “내가 만약 KIA전에서 못하면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라고 농담을 한 안치홍은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는데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아쉽다. 하지만 나중에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단계적으로 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터커 홈런존 행운에 윌리엄스 감독 “나도 예전엔...”

▲예전이면 가능했지만 = 지난 17일 경기에서 KIA 터커는 챔피언스필드 외야 홈런존을 맞으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부상으로 쓰러졌던 터커. 윌리엄스 감독은 “차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미국에서는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둔다”며 웃었다. 이어 자신의 선수 시절도 회상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애리조나 시절에 100만달러 상품이 걸린 이벤트 행사가 있었다. 누가, 어느 이닝에 만루 홈런을 칠지 팬들이 예측하는 이벤트였는데 다른 동료가 만루홈런을 쳐서 100만 달러를 가져갔다. 다음 해에 바로 이벤트가 없어졌다”고 다시 한번 웃음을 터트렸다. 빅리그에서도 홈런타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윌리엄스 감독. “배팅 케이지에서 홈런존에 공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예전엔

는 가능했다. 지금은 외야로 보내기도 힘들다”며 “빅쇼이(최희섭)등 파워 있는 좌타자들이라면 홈런도 가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깊이 있는 라인업을 기대한다 = 윌리엄스 감독은 19일 롯데전에서 황대인을 특별 카드로 선택했다. 황대인을 7번 타자 겸 1루수로 낙점한 윌리엄스 감독은 “팀에서 조금 더 장타를 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깊이 있는 라인업을 꾸리는 데 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대인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퓨처스리그 7경기에서 0.524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16일 콜업을 받았다. 그리고 17일 대타로 들어가 1타점 2루타를 날리며 눈길을 끌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일요일 경기에서 체인지업을 공략해 좋은 2루타를 만들었다. 2군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

여줬는데 페이스를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책 한번 해봐야 = 지난 17일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규성. 2016년 선린인터넷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5년 차인 그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 팀에 돌아왔다. 연습경기에서 뜨거워 타격과 센스있는 수비를 보여줬던 김규성은 대포 엔트리 변동이 있던 지난 16일 콜업되면서 처음 1군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17일 대주자로 처음 1군 그라운드를 밟았다. 기다렸던 데뷔전이었지만 무관중 경기, 대수비였던 만큼 김규성은 “대주자로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었다. 옆에서 김규성의 이야기를 들은 박찬호는 “수비 나가서 실책 한번 해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며 후배를 놀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개막 ‘만반의 준비’

다음달 중순 목표... 동선 추적 시스템 등 고강도 코로나 예방책

시즌 재개에 안간힘을 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위치정보시스템(GPS) 동선 추적을 포함한 고강도 예방책을 준비한다. 영국 방송 BBC는 6월 중순 재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프리미어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을 19일(한국시간) 소개했다.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은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소규모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은 5명 이하 그룹 별로 7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비접촉’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프리미어리그는 이 지침이 훈련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려고 GPS 추적 기술과 비디오 판독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방역팀을 꾸려 각 팀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리처드 갈릭 프리미어리그 운영부장은 “훈련장마다 감사한 한 명씩을 뒤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기습 점검’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방역팀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각 구단 대표 회의에서 결정됐다. 구단 대표자들은 리그 재개를 위한 방역 시스템 마련에 한창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프리미어리그가 구체적인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 제출하면, 재개를 승인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각 구단은 18일 선수단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다. 각 구단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14일간 격리되는 접촉자 범위를 정하는 과제도 구단 대표자 회의에서 곧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대표자들은 현재 압도적인 선수를 달리고 있어 리그 재개 시 우승이 유력한 리버풀의 우승 트로피 수여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마스터스 프리미어리그 최고경영자는 “안전 문제로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시상식을 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리그 세계가 즐겼다

개막전, 1900만명 시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뚫고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을 TV 중계방송과 인터넷으로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가 19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8~10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1라운드 6경기를 중계로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의 수가 1554만 7000명이다. 여기에 K리그1 공식 개막전의 유튜브와 트위터 중계 접속자(360만명)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1914만여명이 K리그1 개막전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축구 가뭄’ 속에서 유일하게 K리그가 개막하자 전 세계 37개국에 중계권이 팔리나갔다. K리그 개막을 앞두고 36개국에 중계권을 구매한 가운데 포르투갈 방송사인 ‘채널 11’이 개막 직전 가세해 중계권을 구매한 국가는 37개국으로 늘었다는 게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1라운드 6경기 기준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과 마카오에 영상을 중계하는 ‘K-BALL’ (6경기 중계)과 ‘PPTV’ (2경기 중계)의 시청자 수는 580만명에 달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인도권 방송사인 판코드(FANCODE)를 통해서 520만명의 시청자가 K리그1 개막전을 봤다. 한편, 지난 주말 치러진 K리그1 2라운드의 네이비 중계 동시 접속자 수는 3만4102명으로 집계됐고, K리그2는 1만3016명이었다. K리그1 2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울산 현대 경기는 최대 동시접속자 수 5만5931명에 누적 동시접속자 수가 90만574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미켈슨 ‘코로나가 야속해’

US오픈 골프 96년만에 지역 예선 취소... 자격 못 갖춰 출전 불투명

올해 US오픈 골프대회 지역 예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19일(한국시간) “올해 9월 열리는 US오픈의 예선 대회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US오픈은 원래 6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9월로 미뤄졌다. 개최 장소는 미국 뉴욕주 마마로네의 윈드풋 골프클럽이다. US오픈 본선에는 156명이 출전하는데 USGA는 해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예선 대회를 개최해 이를 통과한 약 70여명에게 본선 진출 자격을 줬다. 2019년 73명, 2018년에는 74명이 예선을 거쳐 US오픈 본선에 뛰었다. AP통신은 “US오픈 예선 대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1924년 이후 처음”이라며 “USGA는 예선 대회 없이 출전 선수 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올해 대회는 개최 시기를 6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본선 출전 선수의 수도 156명에서 144명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1895년 처음 열린 US오픈은 1924년부터 예선 대회 제도를 도입했고 1959년부터 예선을 지역과 권역의 두 단계로 나눴다. 최근 9차례의 US오픈 가운데 8번이나 예선 참가자가 9천명을 넘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 우승까지 차지한 최근 사례는 2009년 루커스 클로버(미국)다. 올해 US오픈 출전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주요 선수로는 필 미켈슨(미국)이 있다. 미켈슨은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오픈에서만 우승이 없다. 준우승만 6번이나 차지했다. 2006년 윈드풋 골프클럽에서 열린 US오픈에서



미켈슨은 마지막 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는 바람에 1타 차로 우승을 놓쳤다. 한편 USGA는 올해 열릴 예정이던 미드 아마추어 남녀 대회와 시니어 아마추어 남녀 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USGA가 개최할 예정이던 14개 주요 대회 가운데 남녀 US오픈과 남녀 아마추어 대회 등 4개 대회만 남게 됐다. /연합뉴스